

E1, LPG 가격 2개월 연속 인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공급가격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LPG 수입·판매기업인 E1은 7월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가스의 충전소 공급가격을 6월보다 kg당 각각 100원 내린 1319.4원, 1705.0원으로 결정했다고 6월29일 발표했다.

LPG 공급가격은 6월 kg당 49원 인하에 이어 2달째 떨어졌다.

E1은 “국제 LPG 가격, 원화 환율, 누적된 가격 미반영분 등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했다”며 “최근 국제 LPG 가격이 안정돼 국내가격도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12/07/02>